



지혜의 말씀

불기 2567년 7월 / 통권 509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법구경 (法句經)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021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 이치를 똑똑히 알아

022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음을 기뻐하고
성인의 경지를 즐기리라.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신도라는 말 / 윤성스님

오두막 편지(법정) · 8

시간밖에서 살다

관음전불사 권선문 · 12

설담장학회 · 13

대광사 7월 법회 및 행사 · 13

알림마당 · 14

고맙습니다

템플스테이 신축관(휴심당) 완공식 안내

백중기도 접수

칠석기도 법회

수능&수시 백일기도 입재



표지그림/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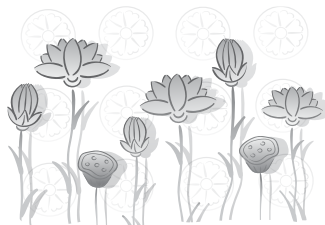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무경스님

● 주 간 / 선화심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신도라는 말

운성스님 / 대광사 회주

붓다께서 가야의 '뽕바라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이루신 뒤 일주일을 선정에 들어 계시다가 마지막 7주 짜엔 나란다 강 언덕의 '라자야따 나무' 아래로 가셔서 조용히 선정에 들어 계셨다.

그때 근처를 지나던 상인 '따붓사'와 '발리까' 형제가 부처님을 뵈고 거룩하신 모습에 감동하여 공양 올리기를 청한다. 부처님께서 허락하시자 곡물가루와 꿀을 공양 올리고 다음과 같이 신도가 될 것을 다짐한다.

"거룩하신 존자시여! 저희 공양을 받아주시어 감사합니

다. 저희들은 이제부터 존자님의 신도가 되겠아오니 거두어 주소서! "

부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이로부터 불교 역사상 첫 신도가 만들어졌다. 신도는 교단의 조직 구성원으로 사부대중의 두 부류에 해당한다.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남자 신도, 여자 신도다. 이를 사부대중이라 한다.

처음 부처님께 공양 올린 이는 당연히 '수자타'지만 수자타는 신도로서의 교단 조직의 일원이 되는 서약이 없었기에 신도로 간주되진 않는다.

신도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다. 신도에겐 믿음 뿐 아니라 실천이 강조된다.

각 종교에서는 그 종교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생활에 실천하는 사람들을 신도라 한다. 따라서 부처님 가르치심을 믿고 따르며 가르치심을 적극 실천하는 사람을 불교 신도라 한다.

불교도 다른 종교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이들을 신도라 하지만 불교인에겐 다른 종교와 다른 공양과 나눔의 두 가지 의무가 더 부과 된다.

나눔과 공양은 같은 듯 다르다. 공양은 스님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소용품을 공양 드리는 것이며, 나눔은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는 보살핌과 함께함의 보살행을 이른다.

나눔은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지만 나에게도 큰 기쁨을 만들어주는 선행과 덕행을 쌓게 된다. 미래에 더 큰 기쁨으로 되돌아오는 공덕의 탑을 쌓게 됨이다.

불교 교단에서는 신도를 단월이라 한다. 단월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불타의 일생 성스러운 행적 속에 다양한 계층의 여러 신도들이 등장하는데 최초 최대의 절 '죽림정사'를 지어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려 했던 '빔비사라왕'과, 슬라바스티에 '기원정사'를 지어 간절히 부처님을 청해 가장 오래 머무시게 했던 '수닷타 장자'가 있다.

몸을 파는 여인 '암바팔리'의 암라수원(큰 정원)의 기증과 가난한 여인 난타의 '빈자 일등' 공양과 대장쟁이 춘다의 '마지막 공양'과 원숭이의 '망고 공양', 코끼리의 '과일 공양' 등은 받드는 신도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왕에서부터 상인과 몸파는 여인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을 받들고 따르는 계층은 실로 다양했다. 더구나 대장쟁이 춘다와 코끼리 내지는 원숭이까지 공양 대열에 참가하게 했음은 '일체중생이 다 불성을 지닌 동등한 존재다.'의 동체대비사상의 실증이다.

어떤 누구든지 상대를 따지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하게 소중하게 뜻을 함께하며 가르치심을 애써 실천하는 사람들을 불교 신도라 할 것이며, 상대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며 나누는 공양을 거룩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을 불교 신도라 할 것이다.



시간밖에서 살다

오두막 편지 申(법정)

“7월호 주지스님 글(사자단상)은 쉬어갑니다.”

삼복 더위에 별고 없는가. 더위에 지치지나 앉았는가. 더위를 원망하지 말라. 무더운 여름이 있기 때문에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그 가을바람 속에서 이삭이 여물고 과일에 단맛이 든다.

이런 계절의 순환이 없다면 살아 모든 것들은 제대로 삶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 날씨가 무덥다고 해서 짜증낼 일이 아니다. 한반도와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는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커다란 복이라 할 수 있다.

7월 한 달을 나는 바깥 출입 없이 이 산중에만 눌러 앉아 지냈다. 비슷비슷하게 되풀이되는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자연의 흐름에 따르면서 새롭게 살아보고자 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집회의 약속을 이행 못하게 된 연유로 해서 모처럼 틀에서 벗어난 생활을 갖게 되었다.

때마침 건전지가 다 소모되어 시계도 멎고, 라디오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게 바로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사람이 시계를 발명한 이래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사회생활에 여러가지로 보탬이 된 것은 지난 인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 시계에 의존하면서부터 사람들은 늘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야하는 폐단도 있다.

먹고 싶지 않아도 식사시간이 되었으니 먹게 되고, 잠이 오지 않는데도 잘 시간이 되었으니 잠자리에 들게 된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우리들은 시곱바늘에 조종당하면서 삶을 이루고 있다.

시계가 멎고 시간을 알리는 라디오의 기능이 쉬게 되자, 나는 비로소 시간 밖에서 살 수 있었다. 배가 고파야만 끼니를 챙기고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온 후에야 잠자리에 들곤했다. 시곱바늘이 지시하는 시간 말고 자연의 흐름을 따라 먹고자고 움직이니 마음이 아주 넉넉하고 태평해졌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자 나는 비로소 자주적인 삶에 한 걸음 다가선 기분이었다. 돌이켜보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시간의 노예가 되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부질없이 살았는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

시계에 대한 내 최초의 경험은 불안이었다. 어린 시절, 고모네 집에 나는 자주 놀러 갔었다. 고모가 잘해주어 몹시 따랐던 모양이다. 그런데 빈방에 혼자 놀다 보면 벽시계의 '똑딱똑딱' 하는 시계추 소리가 몹시 불안하게 들려오곤 했다. 맛있는 음식을 놓아둔 채 나는 말도 없이 슬그머니 고모네 집을 빠져나와야 했다. 아이가 없어진 것을 보고 고모는 걱정이 되어 우리집에 와서 내가 있음을 확인하고 갔다.



요즘은 하나뿐이지만, 불일암에서 살 때만 해도 방마다 탁상시계가 놓여있었다. 말하자면 시간의 노예 노릇을 충실히 한 셈이다. 그런데 아무리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도 ‘짜깁깁’ 소리가 나는 시계는 산 아래로 내려보냈다. 손님으로 가서 객실에 들어 묵을 때도 벽시계가 됐건 탁상시계가 됐건 짜깁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시계추를 멎게 하거나 건전지를 빼 두는 것이 나그네의 습관처럼 되었다. 물론 객실에서 나올때는 원래대로 살려 놓고 나온다.

손목에 수갑처럼 차는 것이 싫어서 손목시계를 한사코 멀리해 오다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부터 외출할 때만 할 수 없이 차게 됐다. 그러니 시간의 노예임을 스스로 표시하고 다니는 꼴이다.

내가 송광사에서 수련회를 주관할 때는 수련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시계를 풀어서 보관하도록 했다. 모처럼 시한부 출가생활을 하는 수련생들에게 시계의 굴레와 시간의 관념에서 벗어나도록 하고자 해서였다.

우리는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무가치하게 낭비하고 있는가. 아직도 몇 분이 남았다고 하면서, 또는 시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일 없이 아까운 시간을 쏟아 버린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과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도 짜투리 시간을 유용하게 쓸 줄을 안 것이다. 시곗바늘이 가리키는 시간에 팔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을 알차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시간 밖에서 살 수 있다.

요즘 같은 산업사회에서는 우리들 자신도 시간 앞에 점점 냉혹해져 가고 야박하게 전락되어 간다. 한참 일을 하다가도 시간

이 다됐다고 일손을 놓아 버리기가 일쑤다. 문헌 김에 조금만 더 일을 하면 깨끗이 끝낼 일도 시계를 보고 일손을 중단하고 만다. 이걸 시계의 노예로 익힌 나쁜 근성이다. 시곗바늘이 미치지 않는 일터에서 인간의 덕이 두터워진다는 노동의 비밀도 터득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죽는 일도 그 시간에 속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시간에 대한 관념에서 벗어나 시계바늘에 의존하지 않으면, 순간순간을 보다 알차게 보낼 수 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초초해하지도 말고 시간 밖에 있는 무한한 세계에 눈을 돌리면 그 어떤 시간에건 여유를 지니고 의젓해질 수 있다는 소리이다.

세상살이에 경험이 많은 지혜로운 노인은 어떤 어려운 일에 부딪칠 때마다 급히 서두르지 말고 좀더 기다리라고 일러준다. 한 고비가 지나면 좋은 일이 됐건 언짢은 일이 됐건 안팎의 사정이 달라지는 수가 많다. 노인들은 풍진 세상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시간의 비밀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머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시간은 가끔 해결해 주는 수가 있다. 그래서 참는 것이 덕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 지금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우선 하룻밤 폭 자고 나서 다음날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조금씩 해결해 버리려고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조용히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운 해결책이 될 것이다.

시간 밖에서 우리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관음전 불사 권선문」

대광사가 현재 위치에 산문을 연지 벌써 40여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간 주지 스님도 운성, 탄경, 자경, 서경, 무경 스님을 지나며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여러 중창불사를 했고, 사회적 역할을 하며 부처님 법 전하는 일에 혼신을 다해왔습니다. 금년에는 그동안 정체되었던 관음전 건축 부지 문제를 해결하여, 오랫동안 사부대중이 염원하시던 관음전 불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웅전 오른편 9평 규모로 지어질 관음전은 관음의 소리를 들어 자기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자성의 공간'이자, 거룩하신 관세음의 모습을 닮아지는 '기도의 전당'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임을 걱정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어 주저하기도 했지만, 어려운 때 일수록 더욱 가피를 받고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종교인의 본분이라 감연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지어질 대광사 관음전이 불자님들의 기도와 자성의 수행도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67(2023)년 2월

회주 설담운성 · 주지 무경 합장

관음전 불사 동참계좌
수협 2010-0909-2481(대광사)

템플스테이 신축관(휴심당) 완공식 안내

- 불기 2567년 7월 2일(양력)
- 보름법회 이후 휴심당 앞마당



대광사 7월 법회 및 행사

- ◇ 7월 2일 :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7월 2일 : 템플스테이전용관 휴심당 완공식 보름법회 후
 - ◇ 7월 13일 : 백중기도 입재 오전 10시 설법전
 - ◇ 7월 18일 :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 10시 설법전
 - ◇ 7월 19일 : 백중기도 초재 오전 10시 설법전
 - ◇ 7월 20일 : 초하루기도 회향 오전 10시 설법전
 - ◇ 7월 26일 : 백중기도 2재 오전 10시 설법전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설담장학회」

대광사에서는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창원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대광사 각 신행단체와 일반 불자님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정성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과 응원이 될 수 있으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설담장학회에서 '설담(雪潭)'은 회주 운성 큰스님의 호이며, 설담장학회 통장으로 입금된 모든 금액은 청소년 장학금으로만 쓰일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설담장학회 계좌번호
수협 2010-0975-0679



대광후원회

(2023.5.17.~2023.6.17)

송성수 10,000	변창인 20,000	윤숙희 20,000	조한분 50,000
황두관 10,000	홍승운 20,000	이병정 30,000	배동환변호사 50,000
정진이 10,000	오현철 20,000	구자민 30,000	정연수 60,000
박미애 10,000	김정문 20,000	배양금 50,000	썬카텍홀딩스 300,000
현경숙 20,000	이인숙 20,000	정대식 50,000	

◆ 급식소 후원 계좌 : 농협 355-0545-9595-03 대광사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군법당 후원**(5.17~6.17)

후원회 10만원

♥ **지혜의말씀 후원**(5.17~6.17)

양재봉 1만원 / 송민기 1만원

♥ **설담장학회**(5.17~6.17)

주지스님 10만원 / 진병천 3만원 / 오현우 14만원 / 허경미 10만원
자비행 10만원 / 법안성 20만원 / 고운님고운선 10만원 / 김순남 1만원

♥ **관음전**(5.17~6.17)

◇3백만원 - 김진수 ◇대광유치원원아일동 - 582,270원

◇1백만원 - 대광사후원회 박원정 진장일 선일 장창욱 황경아 이태만 이진화 문미화

◇50만원 - 권애정 구옥선 전성탁 정숙자 김재만 김상락 김상욱 감민우 김규태 김창규
정은영 이경오 장천석 장다인 오혜정 이정훈 고운님고운선 김용석 김지현

◇30만원 - 포교사(행원팀) 전영환 강문경 성낙홍 김중열 정경희 김동규 서지희 서주연
조현일 문삼식 박인선 박외순

◇20만원 - 관음회 조영자 송준영 김수연 삼덕화 유재곤 김행곤 김경숙

◇10만원 - 진해수석동호인 배외숙 김화석 이순연 이명숙 김성호 이나경 장원희
박재희 박한용 임중윤 오주원 장의정 장유정 김기환 이은우 김순희
이남형 윤영선 이우성 백승진 고영훈 고태우 고봉주



◇5만원 - 이학찬 박선경 이상민 이동문 이영수 박진혁 담화연 김지훈 강윤준
강서하 김수자 이익현 이여진 이종두

♥ 초파일 꽃보시

- ◇5만원 - 자비행 진실행 법안성 덕성심 고봉주 고태주 정법행 대각행 원지심 수선지
◇3만원 - 진성화 인혜심 상현성 금강지 만법수 시형지 광희심 원명심 정광심 감로행
무량화 길상화 허공혜 법연화 자선심 혜명화 윤순현 수덕행 공덕행
◇2만원 - 혜연심 천수심 법계화 선명심 삼덕화 혜명화 법계성 안락심 세력혜 수안문
조재천 이혜인 팽정애 수연화 무량성 도광심 공덕화 흥경자 반야지 원력화
◇1만원 - 혜광화 김영진 월광화 길상천 김말순 수행지 수선화 금강심

♥ 초파일 공양

박종수 이미정 이현실 덕산과일 황석태 임준용 정봉기 박지홍 방진영 정호철

백중기도 접수

- 입재: 2023년 7월 13일 오전 10시
- 초재: 7월 19일 ■ 2재: 7월 26일 ■ 3재: 8월 2일
- 4재: 8월 9일 ■ 5재: 8월 16일 ■ 6재: 8월 23일
- 회향: 8월 30일 오전 10시
- 동참금: 영가 1위당 2만원

칠석기도 법회

- 입재: 2023년 8월 20일 오전 10시 설법전
- 회향: 2023년 8월 22일 오전 10시 설법전
- 동참금: 2만원

수능&수시 백일기도 입재

- 입재: 8월 9일 오전 10시 ■ 회향: 11월 16일 오전 10시 30분
- 동참금: 1인당 10만원

대광사 템플스테이

■ 여행가는 달 안내

- 예 정 : 7월 한달
- 참가비 : 3만원
- 예 약 :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가능

불교문화사업단주관 행사이므로 홈페이지에 오픈되어야 참가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

남 용서하는 남

- 운 영 : 휴식형
- 참가비 : 1인당 4만원
(미취학 ~ 초등 : 무료, 청소년 : 2만원)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

대한불교조계종 **진행대광사**